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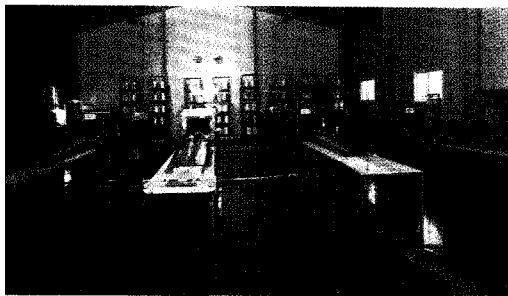
비가오면 생각나는 두색하늘!



두색하늘은 20년간 우산을 제작해 온 기업으로 10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한 결쇠 없는 우산을 이미 상용화하였으며, 이것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고품격 디자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작지만 알찬 기업으로 성장하여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송주홍 대표를 찾아가 인터뷰해 보았다.

손잡이 생산에서 국제특허 출원 기업으로...

두색하늘은 1989년 우산 손잡이 생산을 시작으로 우산 살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화하였고 1996년도에 우산봉제 설비를



갖추고 제품생산에 들어갔습니다. 1999년에 두색하늘의 완제품을 출시하여 출시당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제품개발 및 생산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는 결쇠가 없는 피봇조인트를 개발하여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등 짧은 시간동안 발전의 가도를 달려온 기업입니다.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기업

지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두색하늘의 기업이념인 “고객감동의 실현”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제작 및 공정의 관리, 철저한 A/S, 신뢰에 바탕을 둔 투명한 경영을 기반으로 기업활동 전 과정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예방과 개선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두색하늘의 브랜드 가치와 기업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불법우산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

1980년대 이후 국내 우산시장은 대부분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저가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들이 많아 부도 및 휴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산은 비가 올때 창고에서 꺼내어 하루정도를 사용하고 다시 넣어두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비제품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송주홍 대표

저가의 불법 우산제품을 구입하여 몇 번 쓰고 버리는 일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의 문제는 물론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는 문제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불법우산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도 값싼 불법우산을 사용하고 쉽게 버리는 습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여 오래사용하는 것이 가정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바른길일 것입니다.



안전한 우산의 대명사 “슈룸”

두색하늘의 슈룸 우산은 절연체인 FRP 소재에 우산살을 하나씩 철사로 걸어 조립하던 제품이 아닌 철사, 스프링, 누름쇠를 삭제하여 조립식으로 끼워 만들어내는 두색하늘의 제품은 손이 다칠 위험이 없고 안전한 살대에 고밀도의 의류지를 우산에 응용하여 방·발수는 물론(KC 기준 3배이상) 자외선 차단까지 98%이상 차단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제품입니다.

※ FRP란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으로 194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금속, 세라믹 재료 등을 대체하고 있다.

두색하늘의 “슈룸”의 브랜드명은 우산의 옛 우리말로써 두색하늘의 자체브랜드입니다. 견고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여 유명기업들의 제작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 정비 필요

우산의 안전품질은 1966년도에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개정해오면서 우산의 품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우산시장의 몰락과 값싼 중국 제품이 대량 수입되면서 우산의 품질관리도 흐지부지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우산의 83% 이상이 불량이라는 언론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2009년에 다시 우산을 품질관리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0년 업계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원단부분만을 비교해보면 1966년 기준은 발수도 90, 방수도 30, 염색견뢰 3급 이상의 성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은 우산의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여 품질을 차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8월 다시 개정된 기준은 발수도 90 이상, 방수도 30, 염색견뢰도 3급 이상으로 그 외의 시험 기준은 1966년도 제정되었던 시기보다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개정여유가 업계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였다고 했는데 1996년도와 2011년의 기술이 어느쪽이 우수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안전기준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우산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비용만 추가시키는 것이며,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값싼 제품과 경쟁하기 힘든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전기준의 정비와 더불어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지속적인 불법 우산제품의 관리에 업계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두색하늘로 도약

두색하늘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값싼 수입제품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명품우산으로 거듭나 두색하늘의 우산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색하늘의 성장을 관심과 격려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